



3면

"첨보문서 삭제권한 빼에게 있다"

전주매일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음 6월 10일) 제30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선8기 전북도 첫 추경 편성... 1조2212억원 규모

민생경제 비상대책 '최우선'

코로나19 피해 지원
산업경제·일자리 창출
교육협력사업 등에 중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조2212억원 규모의 첫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은 본예산 9조1,008억원 대비 1조 2,212억원(13.4%↑)이 증액돼,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다. 먼저 민생경제 비상대책과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88억원을 투입해 유가상승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도내 중소 수출업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려·입원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1,207억 원을 편성하고, 격려입원 및 재택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632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8억원을 편성해 내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비래차 산업벨트 구축 등의 도내 산업단지들의 고용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888억원을 편성해 전북의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해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고,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의 도약을 준비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중앙공포를 통해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센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순창에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가운데)는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8기 첫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건립을 추진한다. 또, 위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민 건강생활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비 700억원(시군당 50억원씩)을 투입해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시군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한다.

도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을 위해 714억 원을 투입해 여름철 도민들의 자연재난 등에 대비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24억 원을 편성해 노후화로 안전에 위협이 있는 시군 저수지의 보수·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79억 원을 투입해 생활오수를 초기 단계부터 차단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의 협력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31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향후에는 전북도와 교육청 간에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의 규비지원 제외 사업이었던 익산왕궁 화호마을 축사배입을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 결정하여 새만금의

수질 조기 개선 및 악취 문제를 해소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총 23건에 564억 원을 편성해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멸위기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체류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불어닥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인수가 단계부터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고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신속한 추경 준비를 지시하여 민생경제 비상대책, 코로나19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준비했다"며 도의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18일 열리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운영 방향 및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가상방역훈련 실시

전북도는 7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한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임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가축질병 매뉴얼(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 시 절차별 범위 설정 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실시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3개 시도 22농가에서 발생했고 야생멧돼지는 7일 현재 2,637건이 발생했으며 백두대간을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어 총력 대응 중이며, 열병 발생 및 인접지역 40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생육, 사료, 정액 분뇨에 대해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차단 방역을 위한 울타리 등 중요 방역시설 설치에 대해 137억 원을 지원하고 고위험지역(무주, 진안, 장수), 위험지역, 일반지역으로 설정해 12월까지 모든 양돈농장에 차단 방역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서거석호 전북교육 '밀그림'

교육감직 인수위, '미래 여는 전북교육' 비전
전북형 미래학교 운영 등 10대 정책 발표

제19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전북형 미래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 등 서거석 교육감이 이끌어 갈 전북교육의 밀그림을 내놓았다. 인수위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보고회를 갖고,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과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인수위가 한달여 간 준비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은 공약을 통해 이미 보도된 내용과에 특별히 업로드된 부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컸다.

이종민 인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활동이 벌써 중반을 넘어섰다"면서 "그동안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간 인수위는 기획재정, 미래교육, 교육전환, 소통협력, 조직혁신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실무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들과 함께 전북교육 비전과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 비전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으로, 교육주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2030년 이후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또한 교육지표는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상과 도전 자율과 책임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미래, 책임, 협력, 안전, 자치, 공동체 등 6대



서거석 전북교육감 인수위 관계자들이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분야 34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10대 핵심정책을 밝혔다. 10대 정책은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수업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실현 △전북형 미래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지자체와 교육협력공공회의 체계 구축 △전북학생의회 설립 △공·사립 차별없는 지원 △특수학교 및 학급 신설 △전북교육인권센터 설치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실시 등이다.

인수위는 특히 교육 관련 노조를 비롯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정책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101건의 제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관련부서에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주간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남은 기간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귀하게 듣고 정책에 담아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협력공공회의(추진단), 전라중 부지 활용한 미래교육캠퍼스 구축, 10인 이하 작은학교 통폐합, 혁신학교 운영,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